埋沒될 때 全破 滅失된 것으로 보인다。 實相寺는 新羅 禪門九山의 하나로서 興德王 三年(八二八) 洪陟國師의 創建이라고 傳하고 있어 이 破鐘의 年代를 九世紀初葉으로 比定하여 實相寺創建에 따르는 鑄成으로 보고자 한다。 그 後 戰亂 특히 麗末이나 壬亂 또는 土豪의 相克에 따르는 被禍事實 등에 비추어 일찌기 鐘閣과 더불어 燒失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하여 下半身이 남아서 地下에 埋沒된 後 오랜 空間期에 그 存在를 잃었던 듯하다。 鐘體의 歪曲 특히 下帶에 附着된 溶屑에서 보아 高火度에 의함을 곧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 部分이나마 埋藏되어서 오늘 出世한 것은 또한 奇妙한 因緣으로 新羅鐘研究의 貴重資料를 삼을 수 있을 것이다。 各部 紋樣의 優美流麗함은 특히 當代 工藝의 發達相을 오늘에 보여준다고 하겠다。 비록 破鐘이나 크기에 있어 五臺山 上院寺鐘과 比肩함은 그 大鐘임을 알 수 있는 바 現存部分에서 銘文을 찾지못한 것은 애석한 일이다。

## 洪川津里 石佛과 陽德院 三層石塔

鄭 永 鎬

### 一、邑內津里石佛立像

洪川邑에서 春川行 街道邊인 嚴俊達氏宅(津里七六番地) 後庭에 石佛一軀가 奉安되어 있다。 氏가 十四年前 이 家屋에 移舍올 때는 露天에 放置되었었는데 十年前에 板子로 現在의 堂宇를 짓고 佛像을 安置한 뒤로 洞民들을 비롯 各處에서 많은 祈願信徒들이 모이고 있다。 傳聞한 바에 依하면 六·二五때 佛頭가 缺失된 것인데 某美軍이 移搬하여 現頭部는 佛堂을 세울때의 後補物이라 한다。 목에는 三道가 돌려 있고 法衣는 通肩이며 胸前에 衣帶가 뚜렷하다。 臍部에서 흘러내린 衣文은 兩脚에서 長弧를 그렸는데 그 볼륨이 强하다。 背面에는 衣文等 아무런 彫飾이 없으며 兩側에 鳥羽形으로 펼쳐진 衣文은 衣端이 兩足과 함께 埋沒되어 調査하지 못함은 遺憾이다。 양쪽 팔과 손목에는 팔찌(腕釧)가 굵게 彫刻되었고 右手는 胸前에 들어 外掌하였으며 左手는 臍前인데 손위에 寶珠를 놓고 있다。 直立의 姿勢로 現在는 西向이나 原來의 向은 알길 없다。 어깨나 가슴이 堂堂하고 全體의 均衡이 잡혔으나 各部、 彫刻手法이 鈍重한 點과 衣文 釧飾등으로 보아 年代는 高麗中葉으로 推定된다。 實測値는 (cm)

現高 二一〇 肩幅 七四 胴體厚 四〇 頭高 五二 胸幅 五〇이다。

### 二、陽德院 三層石塔

南面 陽德院(里)現 天竺寺入口 小路邊 耕作地에 完形의 三層石塔 一基가 遺存한다。 天竺寺住持 裵聖鎬氏(六四才)의 말에 依하면 倒壞된 것을 近年에 再建한 것이라 하는데 그 때문에 各層屋蓋의 轉角과 塔材에 磨損이 있다。 自然岩盤(一三〇cm×一七〇cm 厚三五cm)위에 地臺石(一邊長八七cm 厚 八三cm)이 있고 그 上面에 받침 一段을 刻出하여 塔을 받고 있다。 單層基壇인데 各面에 隅柱가 있고 甲石下面에는 內部 깊숙히 一段의 괴임과 같은 副椽이 表現되었으며 上面에는 角形의 낮은 받침으로 塔身을 받고 있다。 各層 塔身에는 兩隅柱가 있는데 初層만은 一石이나 二、三層의 塔身은 그 밑의 屋蓋와 一石으로 되어 있고 露盤과 覆鉢도 三層屋蓋와 一石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各屋蓋上面의 屋身받침은 省略되었다。 各屋蓋받침은 三段씩이며 落水面의 傾斜는 急한 麗代의 典型式을 이루고 있다。 相輪部는 露盤까지로 上面에는 徑 六—九cm의 擦柱孔이 있다。 이러한 屋蓋와 塔身이 一石인 樣式의 例는 春川의 要仙堂里七層石塔이나① 春城郡 倉村里 三層石塔②등에서 볼 수 있는 바로서 高麗中葉 石塔形式의 一例를 여기에 또하나 찾은 셈이 되겠다。 原位置로 推定되며 現在 周圍耕作地에서는 많은 瓦片을 蒐集할 수 있다。 實測値(cm)는

現高 二〇〇 基壇高 四四

甲石一邊長 七八 一層身高 二三

甲石厚 八 二〃 〃 六·五

三〃 〃 五·五

一層塔身幅三三 一層屋蓋長 六三

二〃 〃 三二·五 二〃 〃 五七

三層塔身幅 二九　三層屋蓋長 五一
露盤高 五·五　覆鉢高 三·五
〃幅 二三　〃徑 一九

以上의 塔·像에 對하여는 「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 五二八頁

註①、春川市內의 寶物指定塔으로서 上層의 屋蓋와 屋身의 手法을 살필 것

②、金和英：「春城郡 南面 倉村里의 三層石塔」——(本誌第四卷第四號)

# 全羅北道 海岸一帶의 先史遺蹟

崔 夢 龍

## 一

一九二九年 七月에 今西龍博士가 全羅北道의 金堤郡·井邑郡·扶安郡 等 西部地域을 踏査하여 몇군데에서 先史時代의 遺蹟址를 發見하여 一文을 發表하였으며① 一九二七年 朝鮮總督府에서 全國各地에 散布된 資料를 蒐集하여 調査資料를 發刊했되② 以後로는 全羅北道一帶의 先史時代遺蹟址에 關한 專門的인 報告는 全然 없었으며 數年前 金元龍敎授도 『湖南地方의 史前遺蹟址의 發見이 切實히 기다려진다③』고 吐露한 바 있다。

筆者는 數個月前부터 이 地方에 對해 調査해 보고 싶은 興味를 가져 지난 三月 六日부터 三月 十一日에 걸쳐 同學 郭乘勳君과 함께 全羅北道 海岸에 面하고 있는 現 行政區域單位로 群山市를 包含한 沃溝郡·金堤郡 扶安郡·高敞郡의 一市四郡을 豫備調査하여 새로히 扶安郡에서 支石墓 二基를 發見하였기 于先 簡單히 略述하려 하는 바이다。

## 二

扶安郡에서는 邊山半島를 中心으로 調査하였으나 時間의 制約上 現在 紹介되어 있는 資料를 全般에 걸쳐 踏査하지는 못하였으나 山內面 大項里 蛤九味(조개미)에서 貝塚一個所를 保安面 牛東里 萬化洞에서 大規模의 南方式 支石墓 二基을 새로히 發見하였다。

(a) 下西面 白蓮里 支石墓

이 곳은 이미 그 存在가 일찌기 알려져 있던 곳이나 現在 資料가 몹시 曖昧하여④ 여기에 正確性을 기하고자 한다。

支石墓는 扶安邑에서 格浦行 빠스를 타면 約 三十五分 餘만에 이르는 下西面 白蓮里 西쪽에 北쪽 標高 二四六m인 大光으로부터 내려오는 산줄기가 北쪽 海邊에 이르는 標高 約 一〇七m 되는 瓢形의 잘룩한 허리部分을 形成하고 있는 듯한 두개의 봉우리 사이 國有林인 平地를 이루는 곳에 存在하고 있다。

南에서 부터 番號를 A·B·C로 붙여 놓은 三基의 支石墓는 모두 南方式이며 A와 B는 確實히 알 수 있으나 C는 蓋石만이 나동그러져 있으며 東쪽 一m되는 地點에는 濟州道 北濟州郡 涯月面 郭支里에 있는 支石墓 B와 C의 蓋石下에서 보이는⑤ 것 보다 큰 圓形竪穴이 있어 支石墓라 一旦 斷定을 해보나 어딘가 釋然치 못한 點이 있다。

支石墓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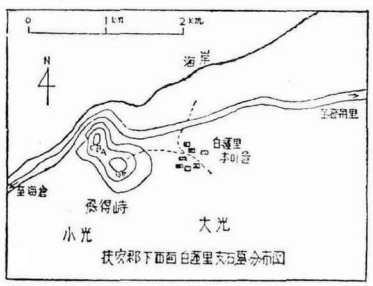
邊山半島 一帶에는 斑岩이 主로 되어 있어⑥ 여기에 存在하는 支石墓도 石質이 同質인 斑岩으로 되어 있다。蓋石밑에 六個의 支石으로 받혀진 南方式支石墓의 南北最大長軸은 三·五三m이며 東西 二·六四m 幅 約 〇·九三m이다。

支石들은 成人한사람이 허리를 굽히고 들어갈 수 있을 만치 높아 內部는 數年前 모두 盜掘되어 攪亂狀態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동내 어린아이들이 內部에서 古錢 한주먹을 끄집어 내어 玩具로 使用하였다는 傳言을 들었으나 確實치 않다。

支石墓 B

外見은 長方形에 가까우며 內部는 이미 盜掘되어 뎡그라니 壕만 들여다 보



扶安郡下西面白蓮里支石墓分布圖